

清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 고찰*

— <寒花葬記>를 중심으로

金熙敬**

<목 차>

1. 들어가며
2. 清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에 대하여
 - (1) 歸有光 文集의 판본 개황
 - (2) 清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
3. <寒花葬誌>와 <寒花葬記>
4. 나오며

1. 들어가며

<寒花葬記>는 지금까지 <寒花葬誌>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왔다. 明代文人 歸有光(1507-1571)의 대표작 중 하나로 짧은 편폭의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과 생동적인 인물묘사가 특징이다. 이 문장은 오늘날 간행된 歸有光의 문집과 각종 문선 등에 모두 <寒花葬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寒花葬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런데 근래 중국의 한 연구자의 논문을 통해 上海圖書館에 소장된 清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에는 이 문장이 <寒花葬記>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校勘 결과 그 내용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 또한 이를 통

해 이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歸震川先生未刻稿》에 지금까지 가장 완정하다고 여겨져 후대 간행된 歸有光 문집의 저본이 되었던 歸莊의 판각본에는 수록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다른 문장이 다수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간행된 歸有光 문집의 판본 개황을 살펴보고 清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歸震川先生未刻稿》에 수록된 <寒花葬記>와 <寒花葬誌>를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寒花葬誌>에 대한 평가들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歸有光의 또 다른 문장 <女如蘭壙誌>에 가져왔던 의문점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2. 清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에 대하여

(1) 歸有光 文集의 판본 개황

지금까지 알려진 歸有光 문집의 판본 가운데 가장 빠른 판본은 歸有光의 문인 王子敬이 福建省 建寧에서 두 권으로 판각한 閩本(또는 復古堂本)이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이 판본은 수록된 문장이 적고 詩는 한 편도 신지 않았다. 두 번째 판본은 歸有光이 죽은 뒤인 萬曆 4年(1576)에 그의 아들 歸子寧과 歸子祐가 수집하고 翁良瑜가 판각한 崑山本(또는 翁良瑜本)으로, 詩 1권과 應酬文 1권을 포함하여 모두 3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판본에 수록된 歸子祐의 識語에서는 “모두 500여 편의 문장을 얻어 30권으로 나누었다.(共得文五百餘篇, 分爲三十卷.)”라고 하여 그가 모은 歸有光의 문장이 詩와 應酬文을 제외하고도 500여 편이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판각되어 나온 문장의 수는 350여 편에 불과했다.²⁾ 후에 歸莊은 새로 문집을 간행하면서 이 판본이 함부로

* 이 논문은 2008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白石大 語文學部 講師.

1) 楊峰, 《歸有光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2) 이에 대해 楊峰은 이것이 집안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스스로 문집을 판각할 수 없었던 형제의 고충과 문집을 팔아 상업적 이득을 얻고자 했던 판각자 翁良瑜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歸有光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4-5쪽 참조.)

추가하고 삭제한 부분이 있고 특히 '書'나 '序'는 藏本과 다른 것이 많다고 하며 비판을 가하였다.³⁾ 그러나 이 판본은 歸有光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버지의 원고들을 모아서 펴낸 문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萬曆 2年(1574) 蔣以忠과 歸有光의 宗弟인 歸道傳이 常熟에서 판각한 常熟本(또는 道傳刻本)이다. 모두 20권으로 歸有光의 산문만 모아 수록하였는데, 그중 100여 편은 崑山本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明代에 간행된 판본이다.

清代에 들어와서는 康熙 14年(1675)에 歸有光의 증손인 歸莊이 기존의 崑山本과 常熟本の 차이를 교정하고 새로운 문장들을 보충하여 판각한 歸莊本(家刻本)이 나왔다. 文集 30권과 別集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歸有光의 詩文 605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판본의 교정은 일찍이 錢謙益과 歸有光의 손자인 歸昌世⁴⁾로부터 시작되었으며,⁵⁾ 그 이후 歸莊과 그의 조카인 歸玠가 교정에 참여하였다. 이 판본은 歸有光의 문집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가장 널리 유행했으며 《四庫全書》·《四部叢刊》·《四部備要》·《古文辭類纂》 등에도 수록되었다. 이밖에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嘉定 縣令 王樸任이 歸有光의 佚文을 모아 간행한 《補刊震川先生集》과 嘉慶 元年(1796)에

3) 歸莊, <書歸太僕全集後>: 先伯祖某刻於崑山, 其人不知文而自用, 擅自去取, 止刻三百五十餘篇. 又妄加刪改, 府君見夢於梓人, 梓人以爲言, 乃止. 故今書, 序二體中, 往往有與藏本異者. (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附錄, 983쪽)

4) 張傳元·余梅年 著, 《明歸震川先生有光年譜》(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0)와 沈新林 著, 《歸有光評傳·年譜》(合肥: 安徽文藝出版社, 2000) 등에는 모두 歸莊이 歸子寧의 손자이자 歸輔世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 佐藤一郎 著·趙善嘉 譯, 《中國文章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107-108쪽에서는 歸子駿의 아들인 歸昌世를 歸莊의 부친으로 보았다. 그런데 歸莊이 康熙 6年(1667)에 쓴 <書歸太僕全集後>에서 "諸刻既未備, 又非善本, 先君子常憫於懷, 取所藏原本, 考較是正. 又慮有缺遺, 命莊假館虞山, 從先師錢牧齋宗伯借藏本, 錄其所無者, 令得八百餘首, 篋而藏之. 語莊兄弟曰: '汝曾祖文章, ……吾欲以諸刻本與未刻者, 合而錄之, 今窮老無力, 他日汝輩事也.' 莊謹志之, 不敢忘. 今先君捐館, 兩昆殉難二十餘年."이라고 한 것을 보면, 歸莊이 말하는 '先君子' 즉 이미 20여 년 전 작고한 부친이 錢謙益과 함께 歸有光의 원고를 모으고 교정하였던 歸昌世(1573-1644)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래 何天杰의 《歸莊研究》(華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를 비롯한 歸莊에 관한 여러 연구 자료들에서도 역시 歸有光 年譜와는 다르게 歸莊이 歸子駿의 손자이자 歸昌世의 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5) 錢謙益, 《牧齋初學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卷八十三, <題歸太僕文集>: 余與熙甫之孫昌世, 互相搜訪, 得其遺文若干篇.

歸有光의 후예가 歸莊本과 《補刊震川先生集》에 실린 문장들에 《史記評點例意》를 추가하여 간행한 玉鑰堂 刻本 《震川先生大全集》 등이 있다.

최근에 上·下 두 권으로 나온 周本淳 校點의 《震川先生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은 歸莊本을 영인한 《四部叢刊》과 嘉慶 元年의 玉鑰堂 刻本 《震川先生大全集》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文集 30권과 別集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清 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

현재 中國 上海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清 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는 문체별로 총 25卷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초록한 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卷首와 卷端에 '孫男濟世集'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歸有光의 손자인 歸濟世가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歸有光의 年譜를 보면 그의 손자 가운데 歸濟世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⁶⁾ 그러나 연보에 있는 손자들 이름의 돌림자가 '世'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 역시 歸有光의 손자뻘 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歸有光의 손자인 歸濟世가 수집한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면 시기적으로 歸有光의 증손인 歸莊이 펴낸 것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

여기에 수록된 歸有光의 문장은 대체로 기존의 崑山本과 常熟本 및 補刊本에 실려 있던 것들이지만, 다른 판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문장들도 있다. 예를 들면, 卷1 <經術>에 수록된 《詩經》 <文王之什>에 대한 해석을 담은 글들과 卷25 <雜著>에 수록된 10편의 悼亡文⁸⁾은

6) 張傳元·余梅年 著, 《明歸震川先生有光年譜》(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0).

7) 楊峰은 康熙帝나 雍正帝·乾隆帝의 이름자가 避諱되어 있지 않은 것과 董說의 跋文을 들어 이것이 늦어도 康熙 이전에 초록된 것으로 보았다. (<略談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的價值>, 文獻, 2007年 10月 第4期 참조)

8) <喪子偈聯>·<首七道場疏>·<三七道場疏>·<五七道場疏>·<七七道場疏>·<孟蘭盆會疏>·<奉安觀世音書>·<聖像教寺阿彌陀佛閣募緣疏>·<能仁寺重修募緣疏>·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장들이다. 또한 여기에는 다른 판본에는 없는 歸子寧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萬曆 4年(1576)에 翁良瑜가 출판한 崑山本이 나온 이후에도 아직 판각되지 않은 歸有光의 문장들을 모아 간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壬申年(1572)에 아버지께서 남기신 문장들을 교열하여 30권으로 엮었는데,그때 마침 서적상인 翁良瑜가 와서 아버님의 문장을 판각하고 싶다고 하여 마침내 출판을 하게 되었고 세상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판각하지 않은 것들은 뒤섞여 순서가 뒤죽박죽인지라, 내가 일일이 교감하여 정리하고 편년하여 모아 《世美堂稿》라고 하였다.翁良瑜는 아버님의 문장을 출판하여 매매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였다.아버님의 문장을 내가 출판할 힘이 없어서 판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었으나, 매번 판각도 하지 않고 그 원본도 돌려주지 않았으니, 내가 깊이 원망하나 어찌할 수가 없는 바이다.⁹⁾

歸子寧은 1576년에 서적상 翁良瑜를 통해 歸有光의 문집을 간행한 이후에도 부친이 남긴 문장들을 계속 정리하여 훗날 간행하기 위해 모으고 거기에 《世美堂稿》라는 이름을 붙였다. 《世美堂稿》는 崑山本에 수록되지 않은 문장들을 모은 것이므로 《歸震川先生未刻稿》에만 수록되어 있는 몇 편의 문장들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翁良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문집을 판각할 돈이 없었던 歸子寧을 찾아와 歸有光의 문집을 간행하겠다고 문장을 가져갔지만, 문집을 간행하지도 않고 가져간 문장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歸有光의 문장들이 다수 散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歸震川先生未刻稿》의 卷17

<能仁寺建梓同眞君祠募緣疏>. 제목은 마치 佛敎나 道敎에 관한 글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歸有光의 두 번째 부인인 王氏를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悼亡文이다.(楊峰, <略談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의價值>, 文獻, 2007年 10月 第4期 참조)

9) 歸子寧, <跋先大僕世美堂稿>: 壬申之世, 校閱先君遺文, 編爲三十卷,時有書賈翁良瑜適至, 欲刻先君文, 遂付梓, 盛行於世. 然尚有未編刻者, 皆錯雜之甚, 不肖一一校理, 編其年次, 而匯集之, 仍目之爲《世美堂稿》云.先君之文, 翁賈梓以貿易致富,先君遺文, 不肖既無力付梓, 有云欲刻者輒不吝與之, 然每不刻, 而并其原本不返, 不肖之所以深恨而無及也.(歸有光, 清 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 上海圖書館 所藏本)

<誌>에 수록된 <寒花葬記>은 그 제목이 다른 판본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판본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歸震川先生未刻稿》 末尾에 跋文을 쓴 董說은 1676년에 막 탈고된 歸莊本을 처음 접하였고, 그에 대한 評點을 하는 와중에 우연히 《歸震川先生未刻稿》를 얻었다.¹⁰⁾ 따라서 그는 歸莊本の <寒花葬誌>에 다음과 같은 評點을 남길 수 있었다.

《未刻稿》에는 <寒花葬記>라고 되어 있지 '葬誌'가 아니다. “婢, 魏孺人媵也.” 라는 문장 아래에 다음과 같은 23자가 더 있다. “生如蘭, 如蘭死, 又生一女, 亦死. 予嘗寓京師, 作如蘭母詩.” 그런데 이것이 삭제되었으니, 元公의 잘못이 이와 같다.¹¹⁾

董說의 評點에 따르면 《歸震川先生未刻稿》에는 <寒花葬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문장이 歸莊本에는 <寒花葬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게다가 문장 가운데 23자가 빠져 있다. 이 문장은 崑山本과 常熟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歸莊本에 처음 수록되었으며, 오늘날 전해지는 歸有光의 문집은 대개 歸莊本을 저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는 단지 23자가 빠진 <寒花葬誌>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슷한 시기에 歸有光의 문장을 집대성하여 문집을 간행했던 歸莊이 어째서 《歸震川先生未刻稿》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는 당시 歸有光의 문장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완전한 문집 간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시대적으로 조금 앞선 것으로 여겨지고 게다가 항렬 상 자신의 아버지輩에 해당하는 친척이 엮은 원고를

10) 董說, 《歸震川先生未刻稿》 跋文: 丙辰初夏, 鴻侍, 從吳門返東石澗, 得崑山新刻歸先生脫稿一卷, 新刻以詩字異同, 大負議於一時, 金孝老爲調衆口, 乃得竟刻, 余尚未獲全本也. 秋至水村, 靈珏來侍, 偶及書船中新得震川遺稿. 即索看, 有二三篇已見新刻, 卷中有一二小記文甚奇, 罵得王元美耳, 九月廿五日病中, 日影在殘書面. 漏霜南潛書示珏.(歸有光, 清 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 上海圖書館 所藏本)

11) 董說, <寒花葬誌> 評點: 未刻稿寒花葬記, 非葬誌. 婢魏孺人媵也下有二十三字. 生如蘭, 如蘭死, 又生一女, 亦死. 予嘗寓京師, 作如蘭母詩. 那可削, 得元公之誤如此.(歸有光 著·季錫疇 臨 董說 評點, 《震川先生文集》, 復旦大學 所藏本) 楊峰, 《歸有光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附錄二, 153쪽에서 재인용.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 원고를 보지 못했거나 여기에 실린 문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歸莊은 康熙 6년에 쓴 <書歸太僕全集後>에서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원본과 錢謙益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밝혔으나, 歸莊本에 평점을 하였던 董說이나 汪琬 등의 지적대로 歸莊本 역시 자신이 비판을 가했던 이전 판본의 문장들을 그대로 취하거나 임의로 문장을 선별하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¹²⁾ 따라서 <歸震川先生未刻稿>에 실린 문장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역시 歸莊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寒花葬誌>와 <寒花葬記>

褚斌杰은 <中國古代文體概論>에서 '雜記類' 가운데 하나로 '人物記事'를 들면서 어떤 사람에 관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대개 '記'라고 하며 또 '誌'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寒花葬誌>와 <寒花葬記>라는 제목은 비록 한 글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寒花를 장사지내며 그녀에 관한 일을 기록한 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면 먼저 기존의 <寒花葬誌>와 그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중 寒花는 魏부인이 시집을 때 데려온 아이였다. 嘉靖 丁酉 5월 4일에 죽어 虛丘에 장사지냈다. 나를 모시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였으니, 운명이로구나!

寒花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나이가 10살이었는데, 머리를 양 갈래로 땡아 늘어뜨리고 짙은 녹색 치마를 질질 끌고 있었다. 어느 날씨 추운 날, 寒花가 불에

삶아 익힌 올방개의 껍질을 까서 사발에 담고 있었다.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그것을 가져다 먹으려 했더니, 寒花가 가져가버리고 주지 않았다. 魏부인은 그것을 보고 웃었다. 부인은 매번 寒花에게 의례 곁에서 밥을 먹게 하였다. 밥을 먹을 때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니, 부인이 또 내게 가리켜 보이며 우스워 했다.

그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느덧 이미 십 년이 지났다. 아, 슬플 뿐이로구나!¹⁵⁾

이 글은 嘉靖 16年(1537)에 지어졌다. 비록 2백자도 채 안 되는 짧은 편쪽의 글이지만 생동적인 인물묘사가 특징이다. 작자는 寒花에 관한 세 가지 일화, 즉 寒花가 처음 집에 왔을 때의 모습, 올방개 껍질을 벗길 때의 장난기, 함께 밥을 먹을 때의 모습 등 인물의 특징적 모습과 행위의 순간들을 잘 포착하여 평이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함으로써 친진하고 발랄한 소녀의 형상을 생동적으로 그려내었다. 陳必祥은 <寒花葬誌>가 망자의 이름과 향관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세부 사실만을 선록함으로써 친진하면서 세상일에 구애받지 않았던 寒花의 모습을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고 하여, 이 문장을 별격의 墓誌銘으로 분류한 바 있다.¹⁶⁾

한편 이 문장은 歸有光이 寒花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첫 아내 魏氏를 추억하는 내용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歸有光是 첫 아내 魏氏와 두 번째 아내 王氏를 잃고 그녀들을 그리워하는 글을 많이 지었는데, 직접적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그녀들과 관련된 다른 인물에 관한 글을 쓰면서 그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¹⁷⁾ 이 글 역시 寒花에 대한 글이지만 그 속에서 아내 魏氏와 관련된 일화를 수차례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魏氏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寒花와 魏夫人과 함께 했던

15) 歸有光, <寒花葬誌>: 婢, 魏孺人媵也. 嘉靖丁酉五月四日死, 葬虛丘. 事我而不卒, 命也夫! 婢初媵時, 年十歲, 垂雙鬢, 曳深綠布裳. 一日天寒, 爇火煮菘薺熟, 婢削之盈盃. 予入自外, 取食之, 婢持去不與, 魏孺人笑之. 孺人每令婢倚几旁飯, 卽飯, 目眶冉冉動, 孺人又指予以爲笑. 回思是時, 奄忽便已十年. 吁, 可悲也已!(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卷22, 536쪽)

16) 陳必祥 지음·沈慶昊 옮김, <한문문체론>(서울: 이회, 2001), 288쪽.

17) 歸有光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글들에 대해서는 즐고, <歸有光 家庭散文 研究>(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의 III-1-2) '아내에 대한 사랑'을 참조.

12) 楊峰, <歸有光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8쪽과 郭福宏, <汪琬與歸莊交惡始末>, <綿陽師範學院學報>, 2007年 7期 참조.

13)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384쪽.

14) 歸有光의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項脊軒誌>의 경우 역시 판본에 따라 그 제목이 <項脊軒誌>와 <項脊軒記>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혼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현재 그녀들은 모두 歸有光의 곁에 없기에 그 슬픔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또한 특히 신분이 낮은 이들이나 여성에 관한 글을 많이 썼던 歸有光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자주 거론된다. 사대부가 일개 여종을 위해 이런 '葬誌'를 쓰는 것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寒花가 歸有光에게 아주 의미 있는 존재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寒花葬誌>을 통해 알 수 있는 寒花는 歸有光의 첫 번째 부인 魏氏가 시집을 때 데려온 여종으로, 나이 10세에 歸有光의 집에 와서 19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뿐이다. 이 문장 속에는 단지 어린 시절 그녀의 모습과 그에 관한 몇 가지 일화만이 있을 뿐이어서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떠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淸 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에 수록된 <寒花葬記>에는 문장의 첫 부분에 기존의 <寒花葬誌>에는 없는 23자가 있어 寒花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여중 寒花는 魏부인이 시집을 때 데려온 아이였다. 如蘭을 낳았으나 죽었고, 또 딸을 하나 낳았지만 역시 죽었다. 내가 일찍이 京師에 머무를 때 <如蘭母>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다. 嘉靖 丁酉 5월 4일에 죽어 虛丘에 장사지냈다. 나를 모시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였으니, 운명이로구나! (下略)¹⁸⁾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이 <寒花葬記>에만 있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寒花는 단지 일개 여중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歸有光의 딸을 들쭉이나 낳았던 여인이다. 寒花는 魏夫人이 시집을 때 따라 온 '媵'이었다. '媵'이란 원래

18) 줄고, 《歸有光 家庭散文 研究》에서는 <寒花葬誌>을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는 절에서 첫 번째 아내 魏氏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문장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오금순, 《歸有光 女性素材 散文 研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에서는 이 문장을 '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분류하면서 寒花가 '부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자 딸과 같은 존재'였다고 서술하였다.

19) 歸有光, <寒花葬記>: 婢, 魏孺人媵也. 生如蘭, 如蘭死, 又生一女, 亦死. 予嘗寓京師, 作如蘭母詩. 嘉靖丁酉五月四日死, 葬虛丘. 事我而不卒, 命也夫!……(淸 抄本 《歸震川先生未刻稿》, 上海圖書館 所藏本)

여자 쪽에서 신부를 따라서 함께 시집가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신부의 姪女나 동생이 따라갔으며 그들 역시 신부에 버금가는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어 '妾'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었다. 秦漢 시대 이후로 媵과 妾이 점차 결합되어 그들을 합하여 '媵妾'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점차 과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신부에게 다른 여자를 딸려 보내는 풍습은 계속되었는데, 이때 주로 노비나 몸종을 딸려 보내 과거의 '媵'과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²⁰⁾. 歸有光은 이 문장에서 寒花를 지칭하는 말로 '婢[여종]'를 쓰고 있으므로, 寒花가 魏夫人이 시집을 때 딸려 온 '媵'으로 몸종이면서 妾과 같은 신분으로 歸有光의 딸을 낳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를 모시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였다'라는 歸有光의 말이 단순히 여종으로서 주인을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如蘭은 歸有光의 딸로 嘉靖 14년에 세상을 떠났다. 歸有光은 <女如蘭壙誌>를 써서 어린 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須浦 先塋의 북쪽에 늘어서 있는 것은 본래 요절한 자들의 무덤이다. 구덩이가 막 덮여져 봉분에 새 흙이 있는 것이 내 딸 如蘭의 무덤이다. 죽어서 묻힐 날은 가정 乙未 中秋日이다. 딸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나를 아파라고 부를 수 있었다. 아! 어머니가 미천하여 태어날 때도 힘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많이 예뻐해 주지 않다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한 번 안아보았다. 하늘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어찌서 태어나게 한 것인가.²¹⁾

嘉靖 14年(乙未)에 歸有光은 집을 떠나 馬鞍山 아래 陳仲德의 집에서 독서와 講學을 하며 과거를 준비하는 한편 두 번째 부인 王氏를 맞아들였고, 이 해 가을에 태어난 지 1년여 밖에 안 된 如蘭이 죽었다. 아마도 어머니를 잃은 지

20) 상해고적출판사 편저, 박소정 편역, 《문답으로 엮은 교양 중국사》(서울: 이산, 2005), 562-564쪽과 易中天 지음, 홍광훈 옮김, 《이중텐 교수의 중국 남녀 옛보기》(서울: 예버리치 홀딩스, 2008), 232쪽 참조.

21) 歸有光, <女如蘭壙誌>: 須浦先塋之北, 纍纍者, 故諸殤冢也. 坎方封有新土者, 吾女如蘭也. 死而埋之者, 嘉靖乙未中秋日也. 女生踰周, 能呼予矣. 嗚呼! 母微, 而生之又艱. 予以其有母也, 弗甚加撫. 臨死, 乃一抱焉. 天果知其如是, 而生之奚爲也.(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卷22, 535쪽)

얼마 안 된 맏딸과 맏아들에게 신경을 쏟느라 어머니가 있는 如蘭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던 듯한 歸有光은 如蘭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품에 안아보게 되었음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책망한 뒤, 중국에는 이렇게 일찍 데려갈 거면서 如蘭을 태어나게 한 하늘을 원망하며 글을 맺고 있다.

<女如蘭壙誌> 속에는 如蘭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동안 如蘭의 출생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沈新林은 如蘭이 歸有光의 첫째 부인 魏氏 소생의 長女라고 하였고,²²⁾ 박경란은 如蘭이 歸有光이 魏夫人을 잃고 王夫人을 맞이하기 전에 만났던 신분이 미천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보았다.²³⁾ 歸有光의 장녀는 이보다 뒤에 쓰여진 <女二壙誌>에도 나오고,²⁴⁾ 歸有光이 末년에 쓴 <請救命事略>²⁵⁾에서도 魏夫人 소생은 ‘다만 딸 하나만 남아있다(僅存一女)’고 하였으므로 如蘭은 魏夫人의 소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魏夫人은 嘉靖 12年 10월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嘉靖 14년에 한 돌을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如蘭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또한 두 번째 부인인 王氏도 嘉靖 14년에 歸有光과 결혼하였으므로 역시 如蘭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결국 시기적으로 볼 때 如蘭이 살아있던 시기는 魏夫人이 세상을 떠나고 王夫人을 맞이하기 전이었는데, 歸有光이 “어미가 미천하여 태어날 때도 힘들었다. 나는 어미가 있다는 이유로 딸을 많이 예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如蘭은 歸有光이 魏氏를 잃고 王氏를 맞이하기 전 신분이 미천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일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如蘭의 출생에 관한 의문들은 <寒花葬記>에 있는 ‘如蘭을 낳았으나 죽었다’는 구절을 통해 마침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어지는 구절은 歸有光이 京師에 머무를 때 <如蘭母>라는 시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如蘭母>라는 제목의 시는 逸失되어 현재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만, 歸有光이 嘉靖 15年(1536)에 會試를 보러 北京에 갔으므로²⁶⁾ 이 시의 창작은 아마도 그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寒花는 평범한 여종이나 단지 魏夫人이 시집을 때 따라 온 귀여운 여자아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歸有光의 딸 如蘭의 어머니였으므로, 이 문장 역시 자신의 딸을 낳아준 여인에 대한 悼亡文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寒花葬誌>를 단순히 사대부가 일개 여종을 위해 써준 과격적인 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문장을 읽을 때 寒花가 아닌 魏夫人에 관한 추억에만 초점을 두어 寒花를 단지 魏夫人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한 매개체로 인식하는 분석 방법 역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장을 오로지 寒花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로만 볼 수는 없다. 문장의 첫 부분이 “여종 寒花는 魏부인이 시집을 때 데려온 아이였다.”라는 말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寒花에 관한 몇 가지 일화들 속에서도 魏夫人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寒花와 魏夫人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려준다. 歸有光은 어머니가 생전에 정해준 배필인 魏夫人을 각별하게 여겨 결혼한 지 6년 만에 사별한 뒤에도 평생토록 그녀를 추억하고 그리워하였으며, 때론 꿈속에서 이미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만나고 슬퍼하기도 하였다.²⁷⁾ 寒花의 죽음은 歸有光에게 곧 魏夫人과 연결되는 끈 가운데 하나가 끊어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歸有光은 寒花의 죽음을 슬퍼하여 글을 짓다가 처음 寒花가 집에 왔던 때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당시의 일화 속에는 항상 寒花가 모셨던 魏夫人이 함께 있었으므로 앞서 세상을 떠난 魏夫人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의도적으로 魏夫人을 추억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지만 寒花를 통해 魏夫人과의 즐거웠던 신혼을 떠올림으로써 魏夫人의

22) 沈新林 著, 《歸有光評傳·年譜》(合肥: 安徽文藝出版社, 2000), 66쪽.

23) 歸有光 지음, 박경란 옮김, 《아내의 방》(서울: 태학사, 2002), 61-62쪽.

24) 歸有光, <女二壙誌>: 予自山中還, 見長女能抱其妹, 心甚喜.(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卷22, 536쪽)

25) 歸有光, <請救命事略>(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卷25, 596쪽).

26) 沈新林 著, 《歸有光評傳·年譜》(合肥: 安徽文藝出版社, 2000), 289쪽.

27) 歸有光, <己未會試雜記>: 四月初五日, 夜泊許墅. 夢魏孺人別居一所, 予往見之, 孺人亦來就余所, 尋復去. 相見時甚歡, 以爲世間未有之事, 約與相迎爲夫婦如故; 孺人意亦允諧. 方躊躇間, 岸上鼓鑿鑿, 夢覺矣. 自孺人歿, 幾及三紀, 未嘗夢. 俗以爲淚着殮時衣, 不夢也. 今始一夢, 慘然甚感!(周本淳 校點, 《震川先生集》, 別集 卷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850쪽)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이 문장의 수사기법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4. 나오며

歸有光의 문장들은 남에게 써준 것이 많은데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明末의 어지러운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이 逸失되어 후세에 문집을 펴낼 때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歸有光 문집의 판본이 많지는 않으나 수록된 문장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清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는 그동안 간행된 歸有光의 문집에 수록되지 않거나 내용상에 차이를 보이는 문장들을 일부 수록하고 있어, 그간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寒花葬記>의 발견은 문장의 원형을 완전하게 되살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기존의 간행본에서 볼 수 없었던 문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歸有光 문장의 校勘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清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上海圖書館 所藏本。
 歸有光 著·周本淳 校點，《震川先生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歸有光 著·趙伯陶 選注評點，《歸有光文選》，蘇州：蘇州大學出版社，2001。
 葉祖興·英子 選注，《歸有光抒情散文》，北京：作家出版社，1997。
 姚鼐 纂集，《古文辭類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
 錢謙益，《牧齋初學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5。
 張傳元·余梅年 著，《明歸震川先生有光年譜》，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0。

- 呂新昌 著，《歸震川及其散文》，臺北：文津出版社，1998。
 沈新林 著，《歸有光評傳·年譜》，合肥：安徽文藝出版社，2000。
 佐藤一郎 著·趙善嘉 譯，《中國文章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6。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編，《中國古籍善本書目》集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
 褚斌杰，《中國古代文體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3。
 歸有光 著·박경란 옮김，《아내의 방》，서울：태학사，2002。
 陳必祥 著·沈慶昊 옮김，《한문문제론》，서울：이회문화사，2001。
 上海古籍出版社 編，박소정 譯，《문답으로 엮은 교양 중국사》，서울：이산，2005。
 易中天 著·홍광훈 옮김，《이중텐 교수의 중국 남녀 옛보기》，서울：에버리치 홀딩스，2008。
 楊 峰，《歸有光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2006。
 何天杰，《歸莊研究》，華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5。
 박경란，《歸有光 散文 研究》，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오금순，《歸有光 女性素材 散文 研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김희경，《歸有光 家庭散文 研究》，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楊 峰，〈略談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的價值〉，《文獻》，2007年 10月 第4期。
 鄒國平，〈如蘭的母親是誰？—歸有光《女如蘭壙誌》、《寒花葬誌》本事及文獻〉，《文藝研究》，2007年 第6期。
 郭福宏，〈汪琬與歸莊交惡始末〉，《綿陽師範學院學報》，2007年 第7期。

< 中文提要 >

明代散文大家歸有光擅長寫家人親情、生活瑣事，佳作很多。《寒花葬誌》是其中代表作品，長期以來為讀者所欣賞，并被選入許多選本。但是，此文在上海圖書館藏清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裏，不作《寒花葬誌》，而作《寒花葬記》；與通行的《寒花葬誌》相比較，內容中多有二十三字。而且此《歸震川先生未刻稿》中的不少篇目為諸刻本所不載，更有校訂價值。所以對於《歸震川先生未刻稿》的研究，可以補全歸有光的文章，又能在相關研究中提供很多新的信息。

本文對清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和所收的《寒花葬記》進行考察。由此可知，寒花不只是一個通常意義上的“婢女”，而是歸有光的女兒如蘭的母親；《寒花葬記》也屬於一種他

爲近似於自己的一位妾寫的悼亡之作。這些問題的發現和解決，對於歸有光作品的准确理解具有很大的意義。

關鍵詞：歸有光、清抄本<歸震川先生未刻稿>、<寒花葬誌>、<寒花葬記>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8. 7. 12	2008. 8. 1	2008. 8. 15	2008. 9. 20	2008. 9. 30